

#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

Global Supply Chain Insight



채널 구독하기

Weekly 제113호  
2024.07.11.(목)

## I. 공급망 주간 이슈 Check!



### 주요 공급망 이슈

- 중국·통상** 中 상무부, EU 대상 무역장벽 조사 심사 중
- 태국·전기차** 中 전기차 제조사 BYD, 태국 공장 완공...동남아 시장 수성에 박차
- 미국·통상** 美, 자국 수입품에 대한 탄소세 책정 시스템 시행 검토
- 중국·물류** 對中 제재로 아시아發 유럽向 컨테이너 운송량 감소 가능성 제기

### 주간 이슈 포커스

- EU·통상** EU 에코디자인 규정(ESPR) 오는 7.18일 발효 예정

### 원자재 뉴스 PLUS

- 원자재** 中, 공급 부족으로 상반기 희소금속 가격 상승세

## II. 월간 공급망



CBAM '24년 하반기 이후 기업의 대응 방향

## III. 공급망 더 알아보기



이차전지 보급 동향과 전망

## IV. 공급망 소식통



수출입 화주를 위한 해상운송 물류비용 절감 세미나 안내

## 소재부품장비산업 공급망센터

Korea Center for Global Industrial Supply Chain

## 공급망 주간 이슈 Check!

### 주요 공급망 이슈

작성 KOTRA 글로벌공급망실

#### 중국, 통상 中 상무부, EU 대상 무역장벽 조사 심사 중

6.27일(현지시간) 中 상무부는 최근 중국기계전기제품수출입상회가 업계를 대표해 제출한 EU 무역장벽 조사 신청 자료를 접수했으며, 관련 법에 따라 심사할 것임을 밝힘

- 中 상무부 대변인은 “EU의 역외보조금 관련 조치가 中 기업의 對유럽 수출·투자·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 것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수차례 반대를 표명했다”고 강조
- 또한 상무부는 EU産 톨루이딘\*에 대한 반덤핑 일몰 재심을 착수한다고 발표함으로써 지난 '13년부터 부과해 온 톨루이딘 반덤핑 관세의 연장 가능성을 시사

\* (톨루이딘, Toluidine) HS Code 29214300 / 염료·색소 제조 시 첨가제로 사용되며 고무 합성·농약·의약품 제조 등에 활용

핵심 키워드

대중제재

무역장벽

출처: 차이렌서(财联社)('24.06.27) 등 언론보도 KOTRA 베이징무역관 종합

#### 태국, 전기차 中 전기차 제조사 BYD, 태국 공장 완공...동남아 시장 수성에 박차

7.4일(현지시간) 현지 언론에 따르면 中 전기차 기업 BYD\*는 방콕 남부 라용(Rayong) 지역에 자사 첫 동남아 공장을 완공했다고 보도

- BYD는 동 공장 설립에 4억 9,000만 달러(약 6,800억 원) 규모를 투입했으며, 해당 공장은 연간 15만 대의 전기차 생산 예정
- 올해 1분기 태국 전기차 시장에서 BYD 시장점유율은 46%에 달하며, 중국産 전기차로 확장 시 80%에 육박

태국은 정부의 집중 지원으로 전기차 생산과 소비가 가파르게 증가하며 동남아시아의 전기차 허브로 급부상

- 태국 정부는 '30년까지 전체 자동차 생산량의 30%를 전기차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보조금 지원 및 투자 적극 유치

핵심 키워드

전기차

BYD

출처: 방콕포스트('24.07.04), 연합뉴스('24.07.04) 등 언론보도 KOTRA 종합

## 미국, 통상 美, 자국 수입품에 대한 탄소세 책정 시스템 시행 검토

 7.1일(현지시간) 현지 언론에 따르면, 美 행정부는 수입품을 대상으로 탄소세를 책정하는 시스템의 시행 검토를 언급했다고 보도

☞ 동 체계는 ▲對中 견제, ▲세계 무역 및 기후의 탄소 배출량 감소, ▲자국 內 산업 강화 등을 목적으로 시행될 예정

☞ 美 정부는 제품에 내재된 탄소의 공정한 가격 책정 등 정책 프레임워크 구현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23.4월 창설하고, 탄소 배출량 데이터 수집·분석을 진행

\* 기후와 무역을 위한 태스크포스: 세계 무역·제조업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 감소 및 탄소 누출·투기·배출 문제를 해결하고 탄소 배출량 데이터를 수집 및 분석하는 조직

 포데스타 美 기후특사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EU의 CBAM 시행 및 中 탄소 배출권 가격 책정시스템 확대 등 글로벌 시장에서 탄소 가격 책정의 필요성을 강조

☞ 기후특사는 또한 “동 체계와 관련된 구체적인 탄소세는 결정되지 않았으며, 정책 수립을 위한 초당적 대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언급

핵심 키워드

탄소세

CBAM

출처: 파이낸셜타임스('24.07.01), 워싱턴 경제통상 브리핑 제24-49호('24.07.02) 등 언론보도 KOTRA 워싱턴무역관 종합

## 중국, 물류 對中 제재로 아시아發 유럽向 컨테이너 운송량 감소 가능성 제기

 7.1일(현지시간) 현지 언론에 따르면, 對中 제재에 따른 아시아發 전체 유럽向 컨테이너 운송량 감소세 전환 가능성 제기

☞ 지난 4월 중국發 유럽행 컨테이너 운송량\*이 작년 4월 대비 6% 증가하며 전체 아시아發 유럽向 컨테이너 운송량의 증가세를 견인

\* 전체 아시아發 유럽向 컨테이너 운송량 가운데, 약 80%는 中 본토와 홍콩發 유럽向 컨테이너

☞ 업계는 EU의 중국產 전기차 대상 추가 관세 부과 결정 등 對中 제재 조치로 對유럽 수출물량이 감소하면서 운송량도 감소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

핵심 키워드

중국 물류

대중제재

출처: 닛케이증권망(日經中文網)('24.07.01) 등 언론보도 KOTRA 베이징무역관 종합

## 주간 이슈 포커스

작성 KOTRA 글로벌공급망실

### EU, 통상 EU 에코디자인 규정(ESPR) 오는 7.18일 발효 예정

 6.28일(현지시간) EU 에코디자인 규정이 관보에 게재되었으며, 7.18일부로 발효될 예정

\* 에코디자인 규정(Ecodesign for Sustainable Products Regulation, ESPR): 제품 설계·개발 단계에서부터 폐기 또는 재활용의  
순 단계에서 생길 수 있는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고, 제품 기능과 품질을 향상하는 환경친화적 디자인 요건을 부과하는 규정

🔍 기존 에코디자인 지침을 규정으로 강화 및 적용 대상을 확장하고, 역내 출시되는 모든 제품을 EU  
차원에서 통합하여 관리

### 에코디자인 규정 주요 내용

| 항 목                 | 세부 내용                                                                                                                                                                                                                                                                                                                                                                                                                                                                                                                       |
|---------------------|-----------------------------------------------------------------------------------------------------------------------------------------------------------------------------------------------------------------------------------------------------------------------------------------------------------------------------------------------------------------------------------------------------------------------------------------------------------------------------------------------------------------------------|
| ① 지속가능성 요건 부과       |  위임법을 통해 제품군별 지속가능성 요건 설정 예정<br>🔍 제품의 특성을 고려, 제품군별 내구성·재활용 및 수리 가능성, 업그레이드<br>가능성 등의 요구사항 설정 예정<br>🔍 발암물질 등 우려 물질 사용 최소화하고, 제품에 우려 물질 포함 시, 제품<br>내 위치와 인체·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의 정보 고시                                                                                                                                                                                                                                                             |
| ② 디지털 제품 여권(DPP) 도입 |  제품의 최신 정보가 포함된 디지털 제품 여권 도입 예정<br>🔍 (적용 시점) 우선 적용 지정 품목의 DPP 도입은 '27년 중순 전망<br>🔍 (포함 정보) 제조사 정보·제품 사용법·수리 가능성·재활용 및 폐기 정보 등<br>🔍 (형식) QR코드 등 디지털 캐리어 통한 접속, 개방형 데이터 지향                                                                                                                                                                                                                                                                  |
| ③ 미판매 제품 폐기 규제      |  미판매 소비재 폐기 정보 공개<br>🔍 (적용 시점) 대기업은 '24년도 정보 포함한 폐기 정보 공개, 중견기업은<br>'30.7.19일부터 적용*<br>* 중소기업 및 소기업 적용 제외<br>🔍 (포함 정보) 미판매 폐기 제품 유형별 수량 및 무게·폐기 사유·폐기 방지를<br>위해 취한 조치 및 계획 등<br>🔍 (공개 방식) 기업 홈페이지 내 눈에 쉽게 띄는 곳에 정보 게시<br> 미판매 의류 및 신발 폐기 금지<br>🔍 (적용 제품) 의류·모자·의류 부자재 및 신발<br>🔍 (적용 시점) 대기업은 '24.7.19일부터, 중견기업은 '30.7.19일부터 적용*<br>* 중소기업 및 소기업 적용 제외 |
| ④ 적용 대상             | 🔍 역내 출시되거나 서비스에 사용되는 부품 및 중간재를 포함한 모든 물리적<br>품목 및 디지털 콘텐츠(단계적 적용 예정)<br>🔍 식품·의약품·자동차 등 다른 법률로 규제되거나 국방·안보 관련 제품은 적용 제외                                                                                                                                                                                                                                                                                                                                                                                                      |
| ⑤ 제재                | 🔍 위반 행위의 정도와 영향, 위반 횟수 등에 따른 벌금 부과(예정)<br>🔍 역내 공공조달 입찰 참여 제한하는 회원국별 국내법 마련(예정)                                                                                                                                                                                                                                                                                                                                                                                                                                              |

핵심 키워드

에코디자인

디지털제품여권

출처 EU 관보 보도자료('24.06.28), EU 경제통상 브리핑 제24-39호('24.07.03) 등 언론보도 KOTRA 브뤼셀무역관 종합

## ◆ 원자재 뉴스 PLUS

작성 KOTRA 글로벌공급망실 참고 한국광해광업공단 KOMIS,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

### 원자재 中, 공급 부족으로 상반기 희소금속 가격 상승세

- ☐ 中 산업 정보포털인 마이스틸에 따르면, 금년 상반기 공급 부족으로 안티모니·비스무트·인듐 등 희소금속의 가격이 연초 대비 40~80% 상승
- 🔍 업계 전문가들은 환경보호 정책의 영향으로 광물 채굴량은 감소한 반면, 생산비용은 상승하며 희소 금속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분석

### 주간 원자재 가격 동향 (7월 1주)

비철금속 | 주요 광산 파업 우려로 동 가격↑, 주요국 생산 실적 부진으로 니켈 가격↑

| 품목 | 연평균 (U\$/톤) |          |        | 주간평균 (U\$/톤) |        |        |
|----|-------------|----------|--------|--------------|--------|--------|
|    | '23년        | '24.1~6월 | 전년비(%) | 6.4주         | 7.1주   | 전주비(%) |
| 동  | 8,478       | 9,097    | 7.3    | 9,468        | 9,644  | 1.9    |
| 니켈 | 21,474      | 17,506   | △18.5  | 16,903       | 17,128 | 1.3    |
| 아연 | 2,647       | 2,641    | △0.2   | 2,853        | 2,921  | 2.4    |

\* 자료원: 한국광해광업공단 KOMIS 등

- ☐ (동) 최근 몽골 노동법 개정에 따른 노동자 임금 급감 우려로 노조 파업 가능성이 제기되며 가격 상승 압력 발생했으나, 잠비아 동 수출실적 확대 등에 따른 상기 상승압력 부분 상쇄
- ☐ (니켈) 1분기 필리핀 니켈 원광 출하량 및 호주 광산 생산량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7%, 21% 감소하며 가격 상승세 시현

철강 | 中 경기부양책 기대로 철광석 가격↑

| 품목  | 연평균 (U\$/톤) |          |        | 주간평균 (U\$/톤) |        |        |
|-----|-------------|----------|--------|--------------|--------|--------|
|     | '23년        | '24.1~6월 | 전년비(%) | 6.4주         | 7.1주   | 전주비(%) |
| 연료탄 | 173.32      | 131.96   | △23.9  | 132.93       | 136.13 | 2.4    |
| 원료탄 | 295.71      | 276.14   | △6.6   | 237.60       | 253.84 | 6.8    |
| 철광석 | 119.32      | 118.42   | △0.8   | 104.84       | 115.85 | 10.5   |

\* 자료원: 한국광해광업공단 KOMIS 등

\*\* 연료탄(호주 뉴캐슬 FOB 기준, ICE 기준), 원료탄(호주 FOB 기준, Premium Low Vol), 철광석(중국 주요항 CFR 기준, 62% 분광)

- ☐ (철광석) 中 공산당 3중전회서 경기부양책 기대감이 더해지며 가격 상승압력 발생
- ☐ (유연탄) 유가 상승 및 계절성 전력수요 확대로 가격 상승압력 발생

주간 원자재 가격 동향 (7월 1주)

희소금속 | 현물 공급 증가로 페로망간 가격↓, 中 희토류 조례 발표로 희토류 가격↑

| 품목             | 연평균 (U\$/톤) |          |        | 주간평균 (U\$/톤) |         |        |
|----------------|-------------|----------|--------|--------------|---------|--------|
|                | '23년        | '24.1~6월 | 전년비(%) | 6.4주         | 7.1주    | 전주비(%) |
| 페로망간           | 1,266       | 1,203    | △4.9   | 1,410        | 1,340   | △5.0   |
| 탄산리튬           | 35,697      | 14,331   | △59.9  | 12,552       | 12,532  | △0.2   |
| 수산화리튬          | 37,972      | 12,963   | △65.9  | 11,660       | 11,436  | △1.9   |
| 코발트 (U\$/lb)   | 17.82       | 16.90    | △5.2   | 16.55        | 16.55   | -      |
| 산화 디스프로슘 (희토류) | 330,258     | 273,725  | △17.1  | 252,300      | 252,300 | -      |
| 산화 네오디뮴 (희토류)  | 78,383      | 54,242   | △30.8  | 51,000       | 51,080  | 0.2    |

\* 자료원: 한국광해광업공단 KOMIS 등  
\*\* 페로망간(중국 FOB 75%), 탄산·수산화리튬(중국 내수가격, 99.5%min, 56.5%min), 코발트(유럽 in-warehouse 99.8%min), 산화디스프로슘(중국 FOB 99.5%min), 산화네오디뮴(중국 FOB 99.5~99.9%)

- ☐ (탄산리튬) 생산업체 생산비용 부담에 따른 제안가 유지로 전주 가격이 지속되었으나, 수요업체는 추가적인 가격 하락을 기대하며 시장 관망
- ☐ (페로망간) 中 페로망간 가격은 철강산업 수요 약화 및 현물 공급 증가로 제안가 하락하며 가격 하락세 시현
- ☐ (희토류) 산화 네오디뮴은 中 희토류 조례 발표 등 국가 차원 규제를 제시하며 전주 대비 가격 상승

에너지 | 美 석유 재고 감소 및 허리케인 발생 등으로 유가 상승세

| 품목   | 연평균 (U\$/bbl) |       |              | 주간평균 (U\$/bbl) |       |              |
|------|---------------|-------|--------------|----------------|-------|--------------|
|      | '23년          | '24년  | 전년비(U\$/bbl) | 6.4주           | 7.1주  | 전주비(U\$/bbl) |
| 두바이유 | 82.10         | 83.43 | 1.33         | 85.01          | 86.53 | 1.52         |
| 브렌트유 | 82.17         | 83.56 | 1.40         | 85.81          | 86.90 | 1.09         |
| WTI  | 77.60         | 78.98 | 1.38         | 81.33          | 83.36 | 2.03         |

- \* 자료원: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 등
- ☐ (원유) ▲美 석유재고 감소, ▲허리케인 발생 등으로 유가 상승압력 발생했으나, 6월 OPEC 생산량 증가 추정 등은 유가 상승폭 제한
  - 🔍 로이터통신 조사에 따른 OPEC 12개국의 6월 원유 생산량은 2,670만 b/d로 전월 대비 약 7만 b/d 증가했으며, 감산 대상 9개국 생산량도 2,150만 b/d로 증가세 시현
  - 🔍 6.28일(현지시간) 美 상업 원유 재고는 4억 4,850만 배럴로 전주 대비 약 1,220만 배럴 감소하였으며, 이는 정제가동률 상승 및 원유 순수입량 감소 등에서 기인

## 월간 공급망

### ◆ CBAM '24년 하반기 이후 기업의 대응 방향

작성 딜로이트 안진희계법인 김병삼 파트너

'23.5.16일 EU는 CBAM(탄소국경조정제)의 공식 발효를 선언하였고, 작년 10월 1일부터 전환기간이 시작되었다. EU 역내 수입업자들은 CBAM 대상 제품의 탄소배출 정보를 수집하여 지난 1월, 4월 두 번의 보고서를 EU 관세 당국의 ICS2 시스템을 통해 수입량과 배출총량을 보고하였다. 국내 수출기업들은 7.31일 올해 세 번째 보고서 제출을 앞두고 있다. '24년 3분기 보고서가 제출되는 10월부터는 지난 6개월간 적용했던 기본값 사용은 더 이상 인정되지 않는다. 이에, 국내 수출기업들은 하반기부터 적용되는 배출량 산정 방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하여 시정조치 더 나아가 과징금 등의 패널티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다. 본 고에서는 CBAM 제도 전반을 다시 한 번 짚어보고 '24년 하반기의 국내 기업의 대응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 탄소국경조정제(CBAM)의 추진 배경

- ☞ '21.7.14일 EU 집행위원회는 '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90년 수준 대비 55% 감축하기 위한 입법안 패키지, 'Fit for 55'를 발표했다. 동 패키지에는 탄소 가격결정 관련 입법안 4개, 감축목표 설정 관련 입법안 4개, 규정 강화 관련 입법안 4개와 포용적 전환을 위한 지원 대책인 사회기후기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1] EU 'Fit for 55' 입법안 구성 현황

| 탄소 가격 결정                                                                                                                                             | 탄소 감축 목표 설정                                                                                                                                             | 탄소 배출 규정 강화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항공부문 배출권 거래제 포함</li> <li>☞ 해운, 육상운송, 건물로 배출권 거래제 확대</li> <li>☞ 에너지 세제 지침 개정</li> <li>☞ 탄소국경조정 도입</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력분담규정 개정</li> <li>☞ 토지이용, 토지이용 변화, 산림 (LULUCF) 규정 개정</li> <li>☞ 재생에너지 지침 개정</li> <li>☞ 에너지효율 지침 개정</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승용·승합차CO2 배출기준 강화</li> <li>☞ 대체연료 인프라 규정 개정</li> <li>☞ 항공운송 연료 기준 도입</li> <li>☞ 해운 연료 기준 도입</li> </ul> |
| 지원 조치                                                                                                                                                |                                                                                                                                                         |                                                                                                                                                 |
| ☞ 사회기후기금(Social Climate Fund) 신설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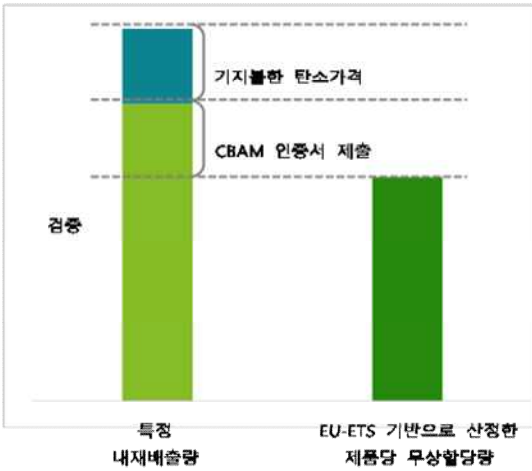
[자료원] 2021, EC, Fit for 55, 딜로이트 재구성

- ☞ 동 패키지 일환으로, 탄소배출량 감축 규제가 강한 국가에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국가로 탄소배출이 이전되는 이른바 탄소누출(Carbon Leakage)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탄소국경조정제(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가 제안되었다.

CBAM 제도 개요

- CBAM은 EU 역내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동일 제품이 EU 역내에서 생산될 때 지불하는 탄소 비용과 동등하게 추가적인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이다.

[그림 1] EU CBAM 비용 부과 매커니즘



자료: IEA(2024.4), Batteries and Secure Energy Transitions

- 동 제도는 ‘Regulation (EU) 2023/956’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다. ’23.10월부터 시작되었으며, ’25.12.31일까지는 전환기간(Transitional Period)으로 운영되고 ’26.1.1일부터는 확정기간(Definitive Period)으로 본격적인 제도 적용이 시작된다. 전환기간 운영 목적은 EU역내로 대상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들이 제품 탄소배출량을 포함한 EU 당국에 보고해야 하는 정보와 보고 과정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고, EU당국에서는 제도 운영의 개선 사항 발굴 등을 통해 확정기간부터는 제도가 공백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있다.
- 전환기간에는 제품당 내재배출량에 대한 검증을 요구하지 않으며, 역내 수출제품에 대한 인증서 구매도 요구하지 않는다. 내재 배출량에 대한 산정 방법론도 ’24.7월까지의 EU 집행위가 제시한 기본값을 활용할 수도 있으며 ’24.12월까지의 우리나라 배출권 거래제 등 제3국 인정 방법으로 산정이 가능하다.

[표 2] EU CBAM의 전환기간/확정기간 중 의무사항

| 구분   |    | 전환기간                                     | 확정기간                                               |
|------|----|------------------------------------------|----------------------------------------------------|
| 기간   |    | ’23.10.1 ~ ’25.12.31                     | ’26.1.1 이후                                         |
| 의무사항 | 보고 | CBAM 보고서 제출                              | CBAM 신고서 제출                                        |
|      | 검증 | 불필요                                      | 연 1회 현장 검증 & 검증보고서 제출                              |
| 보고주기 |    | 분기                                       | 연 1회/차년도 5.31일까지 제출                                |
| 과징금  |    | 배출량 미보고 시 부과                             | CBAM 인증서 미제출 시 부과                                  |
|      |    | 10~50€/tCO <sub>2</sub> e, 미준수6개월이상 시 중과 | EU-ETS의 증가하는 초과배출 과징금과 동일(약40€/tCO <sub>2</sub> e) |

[자료원] 2023, EC, GUIDANCE DOCUMENT ON CBAM IMPLEMENTATION, 딜로이트 재구성

- CBAM 적용 대상은 탄소 누출이 큰 6대 부문에 우선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철강, 시멘트, 비료, 알루미늄, 전력, 수소 부문이 해당한다. 우리 기업의 수출 제품 중 CBAM 대상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EU로 수출하는 상품의 CN 코드가 대상 제품 목록에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표 3] EU 품목별 CN코드

| 부문   | 품목별 CN코드                                                                                                                                                                                                           |
|------|--------------------------------------------------------------------------------------------------------------------------------------------------------------------------------------------------------------------|
| 철강   | 72(일부 제외*), 7301, 7302, 730300, 7304, 7305, 7306, 7307, 7308, 7309, 7310, 731100, 7318, 7326, 260112: 7204, 72022, 72023, 720250, 720270, 720280,<br>* 제외 품목: 720291, 720292, 720293, 72029910, 72029930, 72029980 |
| 시멘트  | 252310, 252321, 252329, 252390, 250700, 252330                                                                                                                                                                     |
| 비료   | 280800, 2814, 283421, 3102, 3105, 310560                                                                                                                                                                           |
| 알루미늄 | 7601, 7603, 7604, 7605, 7606, 7607, 7608, 760900, 7610, 761100, 7612, 761300, 7614, 7616                                                                                                                           |
| 전력   | 271600                                                                                                                                                                                                             |
| 수소   | 280410                                                                                                                                                                                                             |

[자료원] 2023, EC, GUIDANCE DOCUMENT ON CBAM IMPLEMENTATION, 딜로이트 재구성

## 고유내재배출량(SEE) 산정 기본값 사용 종료

- 한국무역협회 무역 통계 기준으로 약 3,000여 기업과 사업장이 CBAM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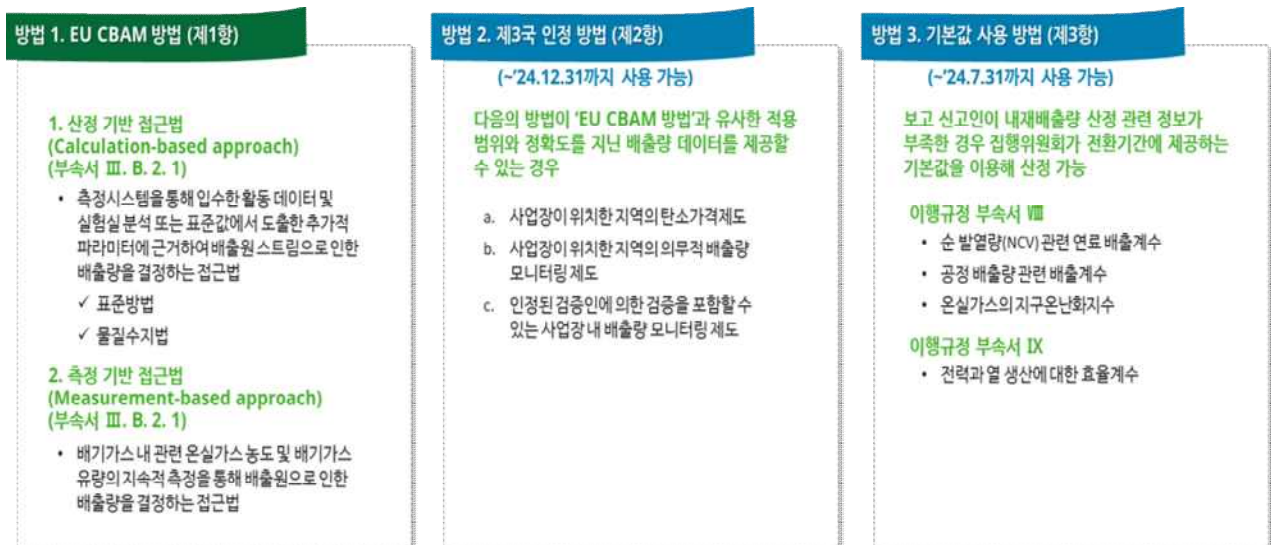
[표 4] 상품 범주별 CBAM 적용 대상기업 현황

| 상품 종합 범주 | CN code | 온실가스     | 대상업체 수('22 년 기준) |
|----------|---------|----------|------------------|
| 선철       | 72~     | CO2      | 260              |
| 철강 제품    | 73~     | CO2      | 2,265            |
| 알루미늄괴    | 76~     | CO2, PFC | 19               |
| 알루미늄 제품  | 76~     | CO2, PFC | 618              |

- 대상 기업 중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도 관리대상 기업,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할당 대상 기업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기업들은 지난 6개월간 기본값 사용 방법을 적용하여 CBAM 보고서 내 고유 내재 배출량을 산정하여 보고서를 제출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 CBAM운영 규정에서 인정하고 있는 배출량 산정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아래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가장 우선시 되는 방법은 EU CBAM 방법이다. CBAM 산정방법은 측정기반 방식과 산정기반 방식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사업장 현실을 고려했을 때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산정기반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산정기반 방식은 GHG Protocol 및 IPCC 가이드라인에 근거하여 배출량 산정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두 번째 방법은 제3국 인정 방법이다.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의 탄소가격제도, 의무적 배출량 모니터링 제도, 인정된 검증인에 의해 검증된 사업장 내 모니터링 제도를 제3국 인정 방법으로 운영 규정에서는 설명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를 운영 중에 있고 대상이 되는 국내 기업들은 매년 3월 말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정보를 국가온실가스종합관리시스템(NGMS)을 통해 명세서 형태로 보고하고 있다. 두 가지 국내 제도에 대상이 되는 기업들은 올해 말까지는 국내 제도 대응을 위해 작성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은 이행규정 부속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본값 사용 방법이다. 기본값 사용 방법은 이행 규정 부속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순발열량, 배출계수, 지구온난화 지수 등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비교적 적용 난이도가 어렵지 않은 방법이다. 다만, 다가오는 7.31일 이후로는 기본값 사용 방법을 적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내 대상 기업들은 제3국 인정 방법 또는 EU CBAM 인정 방법을 활용해야 한다.

[그림 2] 이행규정 제4조 내재배출량의 산정



## CBAM 대응을 위한 고유내재배출량(SEE)의 산정 방법

- CBAM 대응을 위해서 관련 기업에서 이해하고 있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용어 중 하나는 해당 제품의 단위 제품당 온실가스 배출량의 개념인 고유내재배출량(SEE, Specific Embedded Emission)이다. 본 고에서는 고유 내재배출량 산정의 세부 방법론 보다는 산정 방법의 근거, 산정 과정 등을 위주로 설명한다. 고유 내재배출량 산정에 앞서 EU 배출권 거래제 및 배출량 산정 방법에 대한 이해가 우선되어야 한다. EU 배출권거래제(EU-EST)는 '05년부터 시작된 전세계 최대 배출권 거래 시장으로 '21년부터 4기에 접어들어 운영 중에 있다. 국내에도 EU-ETS 체계를 준용하여 설계한 한국 배출권거래제(K-ETS)를 지난 '14년부터 시행 중에 있다. K-ETS는 EU-ETS의 체계를 준용하기는 했으나 설계 당시 정부의 정책 방향과 EU와는 다소 차이가 있는 운영 환경 등을 고려하여 국내에 맞게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으므로 EU-ETS와 K-ETS의 차이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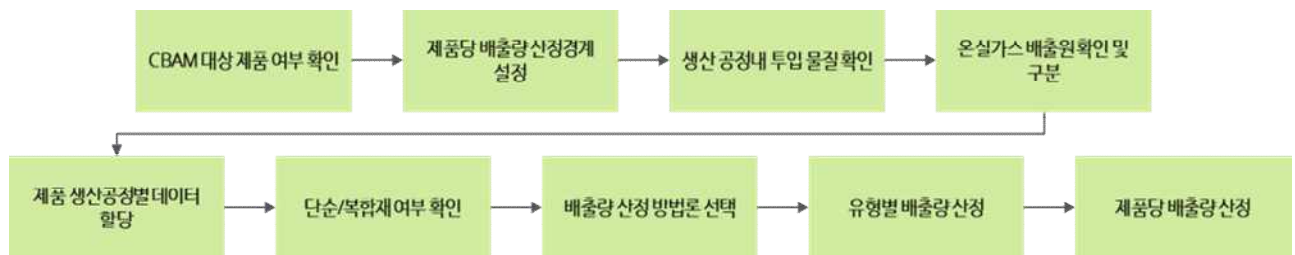
- EU-ETS에서는 이산화탄소, 아산화질소, 과불화탄소 이상의 3대 온실가스를 관리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K-ETS에서는 6대 온실가스를 모두 관리 대상으로 하고 있다. 산정 방식에서도 EU-ETS는 시설단위로 산정하고 K-ETS는 사업장 단위로 산정한다.

[표 5] EU-ETS & K-ETS 비교

| 구분       |      | EU-ETS                                                                                                                                 | K-ETS                                                                        |
|----------|------|----------------------------------------------------------------------------------------------------------------------------------------|------------------------------------------------------------------------------|
| 대상 온실가스  |      | CO2, N2O, PFCs                                                                                                                         | CO2, CH4, N2O, HFCs, PFCs, SF6                                               |
| 업종       |      | 발전, 산업, 항공                                                                                                                             | 발전, 산업, 수송, 건물, 폐기물, 공공기타                                                    |
| 대상       | 대상기준 | (발전) 20MW 이상 발전소 및 기타 연료연소시설<br>(산업) 유류정제소, 코크스로, 철강제련시설, 시멘트, 제지, 유리, 석회, 벽돌 제조시설 등<br>(항공) 상업항공기 연 10,000 톤 이상<br>비상업항공기 연 1,000톤 이상 |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br>(업체 기준) 125,000톤 이상인 업체<br>(사업장 기준) 25,000톤 이상인 사업장 보유 업체 |
|          | 대상 수 | 9,977개소                                                                                                                                | 775개 업체                                                                      |
|          | 산정단위 | 시설단위/공정                                                                                                                                | 사업장 단위                                                                       |
| 배출량 산정방법 | 배출활동 | 29개 배출활동<br>*연소, 공정배출, 항공 등                                                                                                            | 41개 배출활동<br>*고정연소, 이동연소, 고정배출, 폐기물처리 등                                       |

- CBAM은 EU-ETS에 기반하여 설계 및 운영되기 때문에 EU-ETS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내재배출량의 산정해야 한다. 주요 산정 절차는 CBAM 대상제품 여부 확인-제품당 배출량 산정경계 설정-생산공정 내 투입 물질 확인-배출원 확인 및 구분-제품 생산 공정별 데이터 할당-단순재/복합재 여부 확인-배출량 산정 방법 선택-유형별 배출량 산정-제품당 배출량 산정 순서로 배출량을 산정한다.

[그림 3] EU-ETS에 기반한 CBAM 산정 절차



- 배출량 보고기간은 1년을 기준으로 역년(1/1~12/31)으로 산정하나, 회계연도를 보고기간으로 설정할 수도 있다.

## 중소·중견 기업을 위한 정부의 지원과 시사점

- 지금까지 CBAM 개요와 24년 하반기 적용 사항 그리고 CBAM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유내재배출량 산정 방법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다. CBAM은 국내 규제가 아니기에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모든 기준과 사안에 대해 명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가이드를 주기에는 한계가 있다. CBAM의 대상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대기업도 있지만 대부분이 중소중견기업으로 CBAM 대응을 위한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 ▶ CBAM 대응 과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수출 제품의 CBAM 대상 여부 확인, EU 세관 신고서 작성 시 CN코드 판정 과정, 그리고 제품의 내재배출량 산정이다. 특히, 24년 하반기부터는 내재배출량 산정 방법이 더욱 강화된 기준으로 적용되는 만큼 CBAM에 대한 올바른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유럽 관세 당국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고 제품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에 대한 이해를 정확히 하고 있는 전문기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EU 당국 및 현지 상황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글로벌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국내기업에 정확한 정보 제공과 가이드를 주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딜로이트 안진은 지난 12월 CBAM 대응 전담 자문팀을 출범하고, CBAM과 관련된 모든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담팀에는 특정내재배출량 산정 전문가, 관세 전문가, EU 관세 당국 유권해석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운영된다. 국내 최대 규모인 30명의 국내 전문 인력과 딜로이트 유럽법인 EU CBAM 대응팀 20여 명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며 전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 공급망 더 알아보기

### ◆ 이차전지 보급 동향과 전망

**작성** 에너지경제연구원 미래에너지연구실 **참고**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포커스(2024.5.20)

**원문** IEA(2024.4), Batteries and Secure Energy Transitions

이차전지(배터리)는 ‘탈화석 연료 전환’의 핵심 기술로, 전력시스템에서 안정성을 제공하고 유연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에너지안보 개선에도 기여한다. 이에 IEA는 이차전지의 보급 동향을 분석하고 안전한 에너지 전환(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요구되는 보급량을 전망하였다. 이에 대해 알아보자.

### 📊 이차전지 보급 동향과 가격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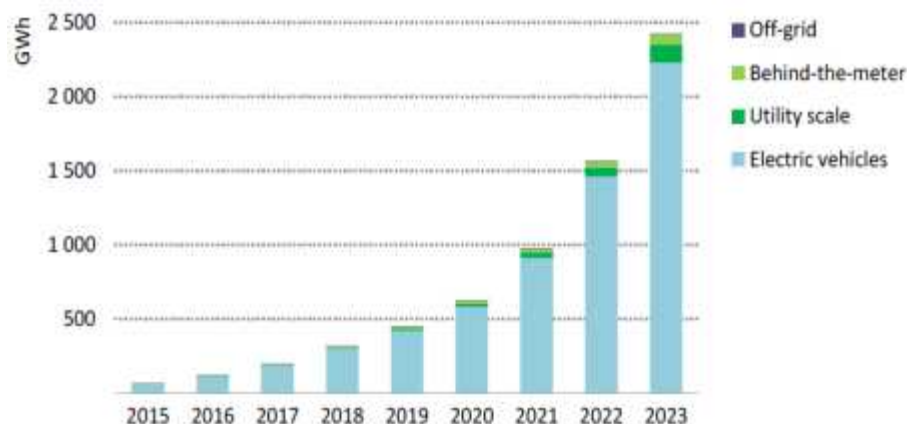
🔍 **(현황)** '23년 전 세계 에너지 부문에서 사용되고 있는 배터리 용량(누적)은 2,400GWh를 초과하였고, '20년 대비 4배 이상 증가 ([그림 1] 참조)

- ▶ 지난 5년 동안 리튬이온 배터리 용량은 2,000GWh 이상 증가하여, 4,000만 대의 전기차와 1,000개의 에너지저장장치 프로젝트에 전력을 공급
- ▶ **(전기차 배터리)** '15년부터 '23년까지 리튬이온 배터리 수요 증가의 90% 이상을 전기차 배터리가 주도
- ▶ **(에너지저장장치)** '23년 전 세계 에너지저장장치 시장은 2배 이상 증가하여 90GWh를 초과하였고, 사용 중인 에너지저장장치 총 용량은 190GWh 이상에 도달함. 이 중 대규모 에너지저장장치(유틸리티\*)가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소규모 저장장치(BTM\*\*)도 '23년에는 약 35% 증가

\* (유틸리티 규모 에너지저장장치) : 송/배전망(FTM)에 직접적으로 연결된 대규모 설비를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수백 KWh에서 GWh급까지 다양

\*\* (Behind-the-meter(BTM) 에너지저장장치) : 보통 전력망에 연결되지 않고 가정용, 상업용, 산업용으로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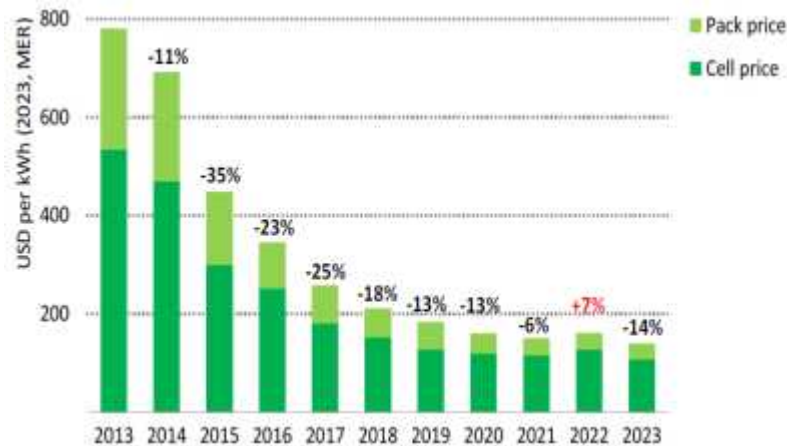
**[그림 1] 전 세계 용도별 리튬이온 배터리 보급 동향(누적)**



자료: IEA(2024.4), Batteries and Secure Energy Transitions

- ➡ (가격) 전반적으로 지난 10년간 리튬이온 배터리 가격은 지속적인 연구·개발(R&D), 규모의 경제, 기술 혁신 등으로 -25%나 하락 ([그림 2] 참조)
- ▶ '22년 배터리 가격은 유일하게 '21년 대비 +7% 상승하였으나, '23년에는 크게 하락하여 '21년 가격 수준보다 낮게 형성됨. 리튬이온 배터리에 대한 투자가 지속되어 '24년 배터리 가격은 하락할 것으로 전망
- ▶ 배터리 가격은 지역별로 상이한데, 중국이 가장 낮고 미국과 유럽은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유지

[그림 2] 리튬이온 배터리 팩과 셀 가격('13~'23년)



자료: IEA(2024.4), Batteries and Secure Energy Transitions

## 전기차 배터리 보급 동향과 전망

### ① 현황

- ➡ 최근 전기차 보급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23년 한 해 동안 세계 전기차 배터리 보급은 750GWh를 기록함. 중국, EU, 미국이 세계 전기차 시장의 90%를 차지하며, 중국이 전기차 배터리 보급과 생산 모두를 주도 ([그림 3 참조])
- ▶ (전기차 보급) 신차에서 전기차 비중은 빠르게 증가하여 '23년 18% 수준에 도달하였고, 중국, 유럽, 미국에서는 각각 신차의 40%, 20%, 10% 이상이 전기차로 구성
- ▶ (배터리 점유율) '23년 전기차 배터리 시장점유율을 보면 중국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EU와 미국을 합해도 시장점유율은 30% 정도임

\* 전기차 시장이 중국, EU, 미국 중심인 이유는 주로 정부 지원 정책과 연관이 있음. 특히 중국은 전기차 구매 인센티브와 함께 탄소배출량 및 연비목표를 설정하였고, 직접적인 인센티브와 금융지원을 제공하여 자국 내 전기차 산업 지원함. 이리하여 BYD와 CATL 같은 기업이 성장할 수 있었음

- ▶ (배터리 생산) 중국이 전기차 배터리 생산의 83%를 담당하고 있으며, 유럽과 미국은 13%, 한국과 일본은 4%를 담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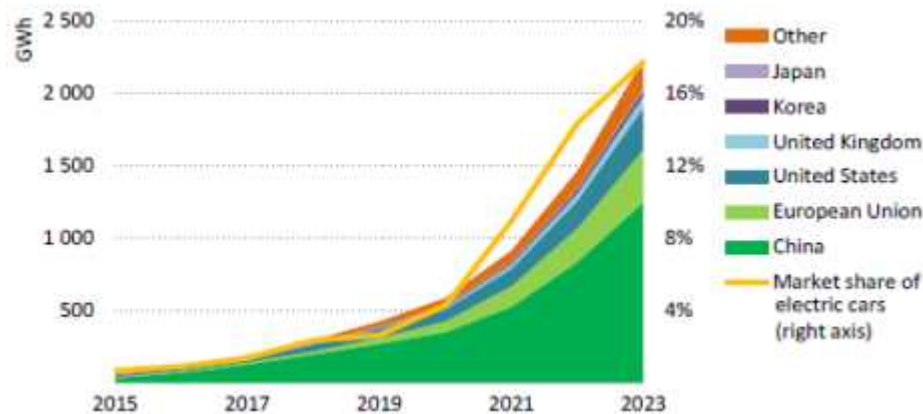
### ② 전망

- ➡ (전기차 보급) '23년 전기차 보급은 신차 중에서 18% 수준이지만, '30년에 현 상황 유지 시나리오

(STEPS)에서는 50%, 2050년 탄소중립 달성 시나리오(NZE)에서 67%로 상승하고, '50년에 STEPS에서 67%, NZE에서 거의 모든 차량이 전기차일 것으로 전망

- ➡ (배터리 생산) '30년 세계 연간 배터리 생산량은 STEPS보다 NZE에서 약 60% 이상 많을 것으로 전망
- ▶ '30년 중국의 연간 전기차 배터리 생산량은 STEPS에서 전 세계 생산량의 4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며, NZE에서는 개도국과 신흥시장의 전기차 배터리 생산량이 STEPS보다 빠르게 증가하여 중국의 점유율이 30%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

[그림 3] 전기차 비중과 지역별 전기차 배터리 보급 추이(누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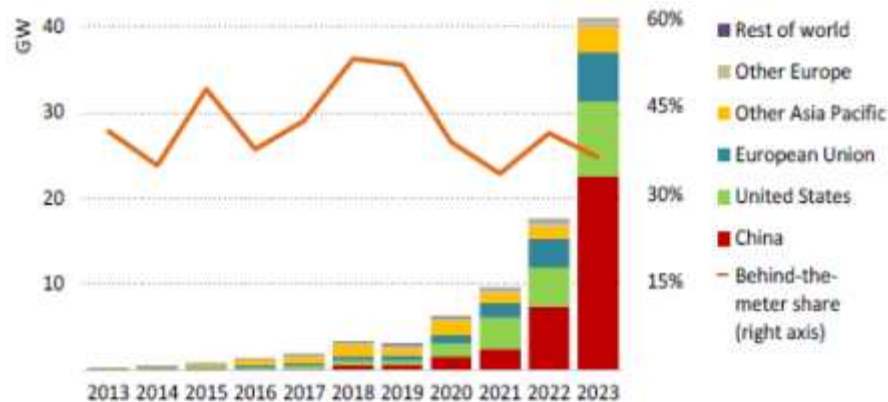
자료: IEA(2024.4), Batteries and Secure Energy Transitions

## 에너지저장장치 보급 현황과 전망

### ① 현황

- ➡ 세계 에너지저장장치 설치용량은 '13년 1GW에서 '23년 85GW로 지난 10년간 급격하게 증가
  - ▶ '23년 한 해 동안에만 40GW 이상이 증설되었으며, 이는 전년 대비 2배 이상 높은 수준임. 증설된 에너지 저장장치 용량의 약 65%는 유틸리티 규모이며, BTM은 연간 증설 용량의 평균 35%를 차지
- ➡ 세계 에너지저장장치 시장은 중국이 선도
  - ▶ (중국) '23년 중국의 에너지저장장치 보급은 전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23GW에 도달하여 전 세계 에너지 저장장치 보급의 55%를 차지함. 이 중 약 67%는 유틸리티 규모이며, 대부분은 태양광·풍력 발전과 연계
  - ▶ (미국) 세계 2위의 에너지저장장치 시장으로 '23년에 8GW 이상의 신규 용량을 설치함. 주로, 유틸리티 규모의 프로젝트가 증가하고 있으며, 경제성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 (유럽) '23년에 에너지저장장치의 용량이 약 6GW로 전년대비 70% 증가함. 이 중 약 90%는 BTM 에너지저장장치로 주로 독일과 이탈리아에 설치됨
  - ▶ (기타) 일본, 한국, 호주 등의 국가에서도 유틸리티 규모 및 BTM 에너지저장 시설이 크게 확대되고 있으며, 이런 추세는 향후 다른 지역에서도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인도는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

[그림 4] 세계 에너지저장장치 설치용량 증설 추이('13~'2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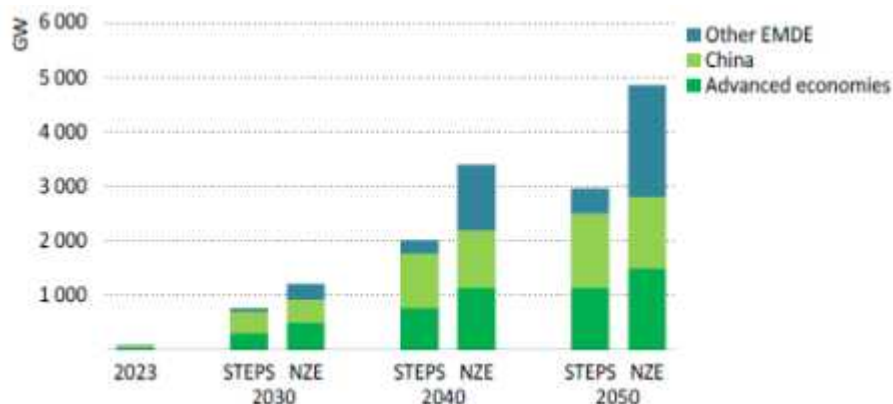


자료: IEA(2024.4), Batteries and Secure Energy Transitions

## ② 전망

- ▶ (설치 용량) 변동성 재생에너지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에너지저장장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세계 에너지저장장치 보급은 향후 몇 년간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
  - ▶ ('30년) 에너지저장장치 용량은 '30년까지 STEPS에서는 9배 증가하여 760GW로 전망되고, NZE에서는 14배 증가하여 1,200GW에 이를 것으로 전망
  - ▶ ('50년) 에너지저장장치는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유연성 제고를 위해 '50년까지 용량이 빠르게 증가하여 STEPS에서 3TW에 도달하고, NZE에서 5TW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
- ▶ (지역별) 향후 세계 에너지저장장치 보급은 현재와 비슷하게 미국, EU, 중국 주도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
  - ▶ (STEPS) '30년에는 선진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3년 55%에서 40% 감소하지만, 여전히 중국이 약 50%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
  - ▶ (NZE) '30년에는 중국 이외의 개도국·신흥시장에서 에너지저장장치 설치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전 세계 보급의 약 25%를 차지하고, 중국은 35%, 나머지는 선진국이 차지할 것으로 전망

[그림 5] 시나리오별 전 세계 에너지저장장치 설치용량 전망



자료: IEA(2024.4), Batteries and Secure Energy Transitions

## 공급망 소식통

### 수출입 화주를 위한 해상운송 물류비용 절감 세미나 안내

작성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 배경 및 목적

- ▶ 배경: 홍해사태 장기화, 중국발 물동량 증가 등으로 인해 해상운임이 급등하고 선박 부족이 심화되는 등 기업의 물류 애로가 발생
- ▶ 목적: 국제물류·관세 등 분야별 전문가의 체계적인 비용 구조 분석과 진단을 통해 해상운송 물류비용 절감을 지원

#### 개요

- ▶ 일시: 2024.7.17.(수) 15:00~17:30
- ▶ 장소: 트레이드타워 51층 대회의실
- ▶ 대상: 수출기업 물류담당자 150명 내외
- ▶ 주최: 한국무역협회

#### 세부일정

| 시간          |     | 세부 내용                                                                                             | 비고                           |
|-------------|-----|---------------------------------------------------------------------------------------------------|------------------------------|
| 15:00~15:05 | '5  | 인사말씀                                                                                              |                              |
| 15:05~15:30 | '25 | 최근 해상운임 동향 및 전망                                                                                   | LX 판토스<br>해운시장 분석팀<br>황규영 팀장 |
| 15:30~16:30 | '60 | 해상 물류비용 구조분석 및 절감요령<br>- 해상운임 구조분석<br>- 부대비용(Surcharge) 완전이해<br>- 물류비용 절감 요령<br>- 화주업체 실제 비용절감 사례 | 정일환<br>영원NCS<br>컨설팅 대표       |
| 16:30~17:00 | '30 | 비용 절감을 위한 관세환급 및 FTA활용 노하우                                                                        | 서울세관 신강균 주무관                 |
| 17:00~17:30 | '30 | 패널토의, 질의응답 및 마무리<br>- 정일환 부사장, 신강균 주무관                                                            |                              |

\* 상세 일정은 추후 변동 가능

#### 신청·문의

- ▶ 신청 방법: [\[사이트 바로가기\]](#) 클릭 후 하단에 표기된 [사업참가 신청하기]에서 양식 작성하여 제출
- ▶ 관련 문의 : ☎ 02-6000-5754, ✉ kscn@kita.net (한국무역협회 물류서비스실)

## 글로벌 경제지표 ['24.7.9일 (화)]

작성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공급망정책과

### 환율

| 구 분           | '22년     | '23년     | '24.2월   | 7/5      | 7/8      | 7/9      | 전일비    | 전년말비   |
|---------------|----------|----------|----------|----------|----------|----------|--------|--------|
| ₩/U\$         | 1,264.50 | 1,288.00 | 1,331.50 | 1,380.30 | 1,383.30 | 1,381.60 | △0.12% | 7.27%  |
| 선물환(NDF, 1월물) | 1,265.30 | 1,286.80 | 1,329.30 | 1,378.10 | 1,380.80 | 1,379.40 | △0.10% | 7.20%  |
| ₩/CNY         | 181.44   | 181.37   | 185.10   | 189.26   | 190.17   | 190.10   | △0.04% | 4.81%  |
| ₩/¥100        | 945.56   | 912.25   | 888.91   | 859.30   | 860.64   | 859.10   | △0.18% | △5.83% |
| ¥/U\$         | 133.73   | 141.19   | 149.79   | 160.63   | 160.73   | 160.82   | 0.06%  | 13.90% |
| U\$/EUR€      | 1.0617   | 1.1105   | 1.0835   | 1.0821   | 1.0816   | 1.0827   | 0.10%  | △2.50% |
| CNY/U\$       | 6.9630   | 7.1092   | 7.1938   | 7.2679   | 7.2695   | 7.2717   | 0.03%  | 2.29%  |

\* '23년 평균 환율: (₩/U\$) 1305.9원, (₩/¥100) 931.6원 / '24년 평균 환율('24.1.1일~현재): (₩/U\$) 1352.0원, (₩/¥100) 886.7원

### 유가·원자재 (원유 \$/배럴, 철광석·비철금속 \$/톤)

| 구 분      |      | '23년 최저(해당일)      | 12/29('23년) | 7/8       | 7/9       | 전일비    | '23년 최저비 | 전년말비   |
|----------|------|-------------------|-------------|-----------|-----------|--------|----------|--------|
| 원유(두바이)  |      | 70.31(3.20일)      | 77.08       | 86.20     | 85.64     | △0.6   | 15.3     | 8.6    |
|          |      |                   |             |           |           | △0.6%  | 21.8%    | 11.1%  |
| 철광석      |      | 97.35(5.24일)      | 140.50      | 108.65    | 109.60    | 0.9    | 12.3     | △30.9  |
|          |      |                   |             |           |           | 0.9%   | 12.6%    | △22.0% |
| 비철<br>금속 | 구리   | 7,812.50(10.5일)   | 8,476.00    | 9,808.00  | 9,762.00  | △46.0  | 1949.5   | 1286.0 |
|          |      |                   |             |           |           | △0.5%  | 25.0%    | 15.2%  |
|          | 알루미늄 | 2,068.50(8.21일)   | 2,335.50    | 2,475.50  | 2,468.5   | △7.0   | 400.0    | 133.0  |
|          |      |                   |             |           |           | △0.3%  | 19.3%    | 5.7%   |
|          | 니켈   | 15,885.00(11.27일) | 16,300.00   | 17,130.00 | 16,980.00 | △150.0 | 1095.0   | 680.0  |
|          |      |                   |             |           |           | △0.9%  | 6.9%     | 4.2%   |

### 반도체

| 구 분                    | '21년  | '22년   | '23.12월 | '24.1월 | '24.2월 | 7/4   | 7/5   | 7/8   | 7월(~8) |
|------------------------|-------|--------|---------|--------|--------|-------|-------|-------|--------|
| D램(8G) 현물가(\$ 기간평균)    | 3.99  | 3.07   | 1.74    | 1.86   | 1.95   | 1.94  | 1.96  | 1.96  | 1.93   |
| (%, YoY)               | 29.9% | △23.0% | △14.8%  | △3.6%  | 6.6%   | 29.2% | 30.2% | 30.8% | 29.3%  |
| 낸드(128G) 현물가(\$, 기간평균) | 6.55  | 7.25   | 6.38    | 6.38   | 6.42   | 6.33  | 6.33  | 6.33  | 6.33   |
| (%, YoY)               | 14.7% | 10.7%  | △2.3%   | △1.9%  | △0.7%  | 0.5%  | 0.4%  | 0.4%  | 0.4%   |

### SCFI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

| 구 분  | 12/30('22년) | 12/29('23년) | 6/21   | 6/28    | 7/5    | 전주비(6/28) | 전년말비   |
|------|-------------|-------------|--------|---------|--------|-----------|--------|
| SCFI | 1107.55     | 1759.57     | 3475.6 | 3714.32 | 3733.8 | 0.5%      | 112.2% |

### BDI (Baltic Dry Index, 발틱운임지수)

| 구 분 | 12/23('22년) | 12/22('23년) | 1/1  | 7/4  | 7/5  | 7/8  | 7/9  | 전주비(7/8) | 전년말비  |
|-----|-------------|-------------|------|------|------|------|------|----------|-------|
| BDI | 1515        | 2094        | 1308 | 2021 | 1966 | 1940 | 1894 | △2.4%    | △9.6% |

# 소재부품장비산업 공급망센터

## Korea Center for Global Industrial Supply Chain

### 문의

KOTRA 글로벌공급망실  
한국무역협회 동향분석실

gvc\_monitoring@kotra.or.kr  
gvc\_research@kita.or.kr



메일 구독(수신)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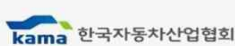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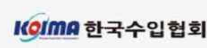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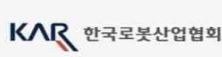


카카오톡 채널 구독

### 주관기관



### 협력기관



본지의 내용은 산업부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